방송가 경연프로그램 다시 '10대'로 뭉친다

가을바람 불면 '트로트 바람' 잦아들까

KBS 2TV '전교톱10' 9월 온에어
80~90년대 노래 재해석 해 경연
엠넷 10대 대상 '캡틴' 10월 방영
일부선 "지나친 경쟁 조장" 우려

한동안 트로트 소재에 쏠렸던 경연프로그램이 다시 '10대'로 향한다. KBS와 엠넷 등이 끼 많은 10대 참가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각종 SNS와 온라인상에서 남다른 화력을 지닌 10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화제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다.

● '화제성'에 목마른 방송사들의 시도

9월 방송하는 KBS 2TV '전교톱10'은 최근 방송가의 '레트로 열풍'을 소재로 삼아 독특함을 더할 기세다. 18세 이하 참가자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노래를 재해석한 무대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또래 시청자뿐 아니라 부모세대인 30·40시청자들의 공감까지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엠넷도 10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프로그램 '캡틴'을 10월 방영할 계획이다. 최근 공지를 내고 출연자 물색에 나섰다. 앞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래퍼' 시리즈를 노래, 춤, 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가장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10대 출연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엠넷 관계자는 26일 "새로운 '케이팝 스타'를 찾는다는 프로그램의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 10대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시청률보다 화제성이 중요해진 시기에 발맞춘 시도"라며 "중장년층 시청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10·20세대의 관심을 끌고, 방송의 다양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지나친 경쟁" 우려도

그럼에도 10대 참가자의 환경과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성상민 기획차장은 "길게는 석 달여 동안 이어지는 제작기간에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긴장감과 재미를 위해 경쟁을 강요하고 전시하는 포맷이 10대 시청자들에게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이돌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아이랜드'는 최근 청소년 참가자들이 승패 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설정으로 시청자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제작진도 관련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전교톱10' 관계자는 "회당 10명으로 경쟁하는 인원을 축소했고, 말미에 각 회 우승자들이 경합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토너먼트 형태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일반 경연프로그램의 과열된 경쟁 양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수현

결혼·임신·소속사 독립 수현, 연기자 인생 2막

가을 출산 후 해외 작품활동 주력

연기자 수현이 결혼과 임신에 이어 소속사에서도 독립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한다. 인생의 변화 속에 올해 가을 2세 출산 이후 해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26일 "수현이 2년여 동안 몸담은 소속사 문화창고와 최근 전속계약을 만료했다"며 "함께 일하면서 양측은 신뢰를 갖고 일해왔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서로 새로운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현은 지난해 12월 사업가인 한국계 미국인 차민근 씨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올해 5월에는 2세 임신 소식과 가을 출산 계획을 알렸다. 차 씨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역임하는 등 한국과 해외를 오가는 사업가이다. 수현은 남편과도 뜻을 모아 다양한 활동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현은 임신으로 작품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뜻 깊은 일에 적극 동참해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원서를 낭독하는 프로젝트인 '해리포터 앳 홈'에 한국배우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하기도 했다.

출산 이후에는 할리우드 등 해외 활동에 더욱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할리우드에 안착한 그는 2018년 '해리포터' 시리즈의 번외편인 '신비한 동물사전' 2편에 출연했다. 특히 '신비한 동물사전'이 총 5부작으로 기획된 만큼 수현의 활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수현은 임신 전 촬영을 마친 드라마 '키마이라' 방송을 앞두고 있다. 박해수, 이희준과 호흡을 맞춰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범죄 추리극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팬심 녹이는 순백의 오마이걸 걸그룹 오마이걸이 25일 밤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팝 무대인 '드림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26회째인 '드림콘서트'는 감염병 확산으로 유튜브 채널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무관객 비대면' 공연으로 치러졌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무대는 26일에도 이어졌다.
사진제공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정재 감독님!…첩보영화 '헌트' 주연·연출·공동제작 1인3역

영화감독 첫 도전…내년 촬영 계획
절친 정우성, 동반 출연 의리 과시

배우 이정재가 감독으로 데뷔한다. 내년 촬영을 계획한 첩보액션 '헌트'(가제)를 통해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다. 5~6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획에 힘을 쏟은 영화 '헌트'의 주연과 연출, 공동제작까지 1인3역에 나선다.

영화는 1980년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를 배경으로 두 명의 에이스 요원이 남파 북한 공작원 총책임자를 쫓으면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다. 이정재는 안기부 해외팀 요원인 주인공 박평호 역을 직접 연기한다.

이정재

'헌트'는 2017년 이정재가 주연을 맡기로 한 '남산'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먼저 알려졌다. 그 이전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이끌어온 이정재는 4년 전 이를 공표한 뒤 촬영을 앞두고 여러 사정으로 제작이 한 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가다듬으면서 작업에 몰두해왔고, 동시에 영화 '사바하', 드라마 '보좌관' 시리즈 주연을 맡아 연기 활동에도 적극 임했다.

당초 '헌트'의 주연으로 참여하려던 이정재는 영화의 출발부터 시나리오 진행 등 전반을 관할한 적임자라는 주변의 판단 등으로 오랜 고심 끝에 연출까지 직접 맡기로 했다. 제작은 이정재와 영화 '신세계'를 함께한 사나이픽쳐스가 맡는다. 시대물인데다 첩보 액션 장르인 만큼 제작 규모는 10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 배우의 연출 데뷔작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의 도전에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배우 정우성이 힘을 보태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우성은 '헌트' 출연을 물론 이정재와 함께 이끄는 매니지먼트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이름으로 공동제작에 동참한다. 두 배우의 영화 동반 출연은 이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1년 만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오정세, 지적장애인 팬과 놀이공원 팬미팅

오정세

배우 오정세가 최근 지적장애인 팬을 위해 시간을 함께 나눴다. 오정세는 지적장애인 첼리스트 배범준씨와 25일 놀이공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는 배씨의 여동생이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배씨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극중 발달장애인 역으로 출연 중인 오정세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여동생은 이를 오정세 측에 전했고, 오정세는 기꺼이 이에 응답했다. 배씨의 여동생은 "감사하다"면서 "온전히 오빠에 집중해주시는 오정세님의 섬세함, 웃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행동도 오빠를 위해 극중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주신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디즈니 실사판 '뮬란' 개봉일 무기한 연기

여름 기대작으로 세계 영화계와 극장가의 기대를 모았던 영화 '뮬란'이 결국 개봉 일정을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조치다. 미국 월트디즈니는 "8월21일 선보일 예정이었던 '뮬란' 개봉일을 무기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사 영화인 '아바타2'와 '스타워즈' 시리즈도 각각 예정보다 1년 늦은 2022년과 2023년에 개봉한다. 당초 '뮬란'은 3월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나혼산' 화사 의상 인종차별 우려 논란

화사

MBC '나혼자 산다'에서 가수 화사가 입은 의상이 특정 국가의 전통의상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작진이 해명하고 나섰다. 15일 방송한 '나혼자 산다'에서 화사와 한혜진 등이 입고 나온 의상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전통의상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선이 최근 제기됐다. 특정 국가의 의상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이를 희화하시킴으로써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작진은 "화사의 의상은 한국적인 사우나 룩에서 비롯됐다"면서 "특정 국가 전통 의상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BTS '문' 롤링스톤 보이밴드 노래 4위 선정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의 수록곡이자 멤버 진의 솔로곡인 '문(MOON)'이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대 최고 보이밴드 노래 톱75'에서 케이팝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6일 롤링스톤에 따르면 '문'은 4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이번 차트에 '문'을 비롯해 2017년 '봄날'(19위), 2018년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의 수록곡 정국의 '유포리아(Euphoria)'(34위) 등 다섯 곡을 올려놓았다.

015B 원년 멤버 조형곤 별세…향년 52세

조형곤

그룹 015B(공일오비)의 원년 멤버인 조형곤이 2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 백석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왔던 고인은 1990년대 015B의 베이시스트로 활약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015B의 멤버 장호일은 SNS에 "아름다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직도 경황이 없다"며 애통해 했다. 조형곤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8년 신해철 등과 함께 그룹 무한궤도 멤버로 무대에 나섰다. 1990년 장호일, 정석원 등과 함께 015B를 결성해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